

# 조선대 새 총장 선출...대학 안정화 주목

### 구성원 갈등 봉합·고소 등 현안 과제 산적 이사 임기 12월 만료·학교 운영체계 문제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 치뤄진 조선대 제17대 총장에 의학과 민영돈(61) 교수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차기 총장이 구성원들의 갈등을 봉합해 안정화의 길로 들어설지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제17대 총장 선거 투표율 한 결과, 민영돈 후보는 유효투표의 58.6%를 얻어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서 결선 투표는 치러지지 않았다.

총장 후보자로 선출된 민 교수는 이

사회 임명을 거쳐 4년 임기 총장을 맡게 된다.

민 당선인은 "혼란의 대학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총장직에 출마한 만큼, 충무공처럼 막중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국내 유일할 100년 전통의 민립대학의 자부심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경영전략과 과제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방식 대전환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 강화 ▲단과별 창업스태이션 설립·운영 ▲

Z세대 맞춤 입학 가능 강화 ▲융합연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차기 총장의 첫째 임무가 구성원 갈등 봉합을 통한 대학 발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조선대는 지난해 6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 대학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면서부터 강동완 전 총장의 거취를 놓고 구성원들이 대립해 혼돈에 빠졌다.

대학 안팎에서 당시 강동완 총장 퇴진 요구가 커졌고 구성원들 사이에는 사퇴 시기를 놓고 갈등을 노출했다.

법인은 지난 3월 강 총장을 해임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정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 대학 측의 불복, 강 총장의 복귀 주장 등이 이어지면서 혼란은 커

졌다.

논란 속에 강행된 차기 총장 선거는 중지를 요청한 강 총장의 가져본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강 총장의 반발로 인한 구성원들의 화합과 눈앞의 입시 등 대학 현안도 산적했다.

강 전 총장이 선거 중지 가져본 신청 결과에 불복해 항고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그동안 고소·고발, 행정소송 등 법률적 논쟁도 끝나지 않았다.

강 총장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 특별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것 같다"며 "기각 결정에 굴하지 않고 대학정상화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입시이사사회 체제 이사들의 임기가 12월에 만료돼 그 이후 대학 운영체제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조선대 정상화 추진 방안 논의를 보류했다.

위원회는 입시이사회, 교수, 직원, 학생, 동창 등 단위별 구성원들을 상대로 청문했지만, 총장 문제 해결 추이를 지켜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새로운 총장이 당선된 만큼 구성원들의 화합을 통한 대학안정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총장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6~27	흑산도	19~25
담양	16~28	구례	18~28
화순	17~28	곡성	17~28
영광	16~26	완도	18~27
함평	16~27	강진	17~27
무안	17~25	장흥	16~28
영암	16~27	해남	15~27
진도	18~26	고흥	16~27
신안	19~26	보성	16~27

일출 06:29 일몰 18:13  
월출 12:14 월몰 22:24

목포	만조 05:47 18:32	여수	만조 00:08 12:55
	간조 10:48 23:29		간조 06:05 18:59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부품소재기술지원단’ 발족

### 광주·전남 8개 대학·4개 출연연구기관 참여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독립 목소리가 높을 가운데, 대학과 연구기관들 참여하는 ‘광주·전남 부품소재기술지원단’이 발족했다.

전남대는 지난 2일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8개 대학,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광주·전남 기업에 대한 부품소재기술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자립화와 부품·소재 대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지도자문, 대학 보유장비 공동 활용, 법률자문 등 윈윈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기술지원단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반도체, 기계/금속(철강, 조선, 로트), 자동차, 전기/전자(정보통신), 화학소재(섬유), 디스플레이’ 분야와 이

를 뒷받침할 ‘수출입·경영·법률·지식재산권’ 등 모두 7개 분야로 나눠 해당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또 중소·중견기업들로서도 대학이 보유한 첨단 기술·장비와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취약한 연구개발(R&D) 보강은 물론 전남대 내 인프라활용지원센터, 리걸 클리닉(법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센터(기술경영부) 등과 연계한 입체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의 국산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으로 ‘부품소재기술지원단’이 결성됐다”며 “지역경제와 기술자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개천대제 단기 4352년 개천절을 맞아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5·18공원에서 열린 개천대제(開天大祭)에서 제관들이 잔을 올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 “도박자금 필요해” 후배 돈 훔쳐 도주

### ‘밥이나 먹자’ 유인 뒤 공범 시켜 현금 탈취

고향 후배에게 도박자금으로 수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뒤 이 돈을 훔쳐 달아난 선배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만원을 훔친 혐의

의(특수절도)로 김모씨(57)를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6시 57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주차장에서 A씨(56)의 차량에서 현금 2,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고향 후배인 A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돈을 빌리기 위해 A씨를 만났고 ‘밥이나 먹자’고 유인, 그 틈에 공범들을 시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쳤다.

범죄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구속된 공범들을 추궁하자 김씨가 범행을 계획·사주했다고 털어냈다.

/이나라 기자

## 광주택시 교통사고 전국 최다...지난해 968건

광주에서 운행되는 택시의 사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택시는 지난해 968건의 사고가

발생해 100대 당 1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은 지난해 338건이 발생, 100대 당 4.9건으로 전국평균 100대 당 8.1건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교통사고 원인은 ▲안전운전의 무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이 가장 많았다.

/고광민 기자

## 전남은 ‘해양쓰레기 천국’ 전국 수거량 약 40% 달해

전남지역 해양쓰레기가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고 수거가 어려운 전남 섬지역의 정화운동선 지원 확대 및 체계적인 수거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원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해 3만 2,618톤으로 전체(지방자치단체 전체 수거량 8만 6,621톤)해양쓰레기량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다.

해양쓰레기가 집중된 전남은 유인도서의 쓰레기 양이 대부분이다.

최근 전남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연구에서 해안가 길이(km)당 쓰레기 분포는 유인도가 3.8톤으로 육지부 0.9톤보다 4배 이상 많다.

/고광민 기자

## 여수 아파트 화재 80대 숨져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0대가 숨지고,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3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52분께 여수시 5층 규모 아파트 1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 배란다 쪽에서 A씨(83)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집에는 A씨와 아내, 딸이 있었고 작은 방에서 홀로 잠을 자던 A씨가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